

4·11 총선 5대 이슈

물갈이 얼마나

김정일 사후 北·中 국경 리포트 ▶1면에서 계속

# 국민 절반이상이 교체 요구... 현역 압박

새해 예산안 처리를 마지막으로 18대 국회가 사실상 종료되면서 19대 '4·11 총선'을 향한 선거전 준비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선거운동을 시작한 예비 후보뿐 아니라 현역 의원들도 지역구민과 접촉을 강화하며 선거경쟁에 뛰어들었다. 광주일보는 이번 총선의 주요 이슈를 5회에 걸쳐 집중 조명한다.

이 같은 광주·전남지역 정치인의 기득권 수호는 정권교체의 선봉에 서고 있는 민주통합당의 인적 쇄신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 기득권 버리고 인적 쇄신 해야 총·대선 승리

### 광주·전남의원들 “마녀사냥식 여론몰이 안돼”

‘물갈이론’은 선거 때마다 최대 이슈로 떠오른 바 있다. 그리고 현역들에게는 치명적이었다.

이번 총선에서도 물갈이론은 다른 어떤 쟁점보다도 선거구민들 사이에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성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큰 탓이다.

2일 발표된 광주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 9개사 공동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국민 10명 중 절반(49.9%)이 이번 총선에서 ‘현역 국회의원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 답했다. 지지 의사를 밝힌 국민은 32.6%에 불과했다. 특히 광주시민의 지지거부 비율은 58.1%나 됐으며 지지 의사를 밝힌 비율은 21.0%에 불과했다. 전남도민도 51.4%가 지지거부 의사를, 37.8%가 지지 의사를 각각 밝혔다.

여기에 잇따르는 불출마 선언 등 정치인들의 기득권 포기 움직임은 확실한 촉매제가 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정장선(3선)·장세환(재선)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또 호남 중진인 김효석·정세균 의원은 서울에서 출마하기로 했으며 3선의 김부겸 의원은 최약세지역인 대구 출마를 선언하는 등 기득권을 포기했다.

특히 더 보수적이라는 한나라당에서는 이날까지 이해봉·박진·현기환·장제원·홍정욱·이상득·김형오·원희룡 의원 등 중진뿐 아니라 촉망받던 초선 의원들까지 기득권을 던졌다. 그럼에도, 민주화운동의 분산이자 대한민국 정치를 주도하고 있다는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김효석 의원의 지역구 양보를 제외하곤 어떤 의원도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

원 교체율은 평균 52%대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럼에도, 물갈이론이 수그러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민주통합당이 추진하는 국민경선 방식으로는 현역들의 물갈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높은 인지도와 조직동원력을 갖춘 현역의원을 정치신인이 제압하기는 ‘계란으로 바위 치기’ 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1차 컷오프 심사 때 현역의원들의 평가를 엄정히 하고 2차 국민경선에서도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제거할 수 있는 공정한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이미 현역의원 교체 기준을 마련한 만큼 민주당에서도 이 같은 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여야가 이미 인적쇄신 경쟁에 들어갔기 때문에 물갈이론은 더욱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원 교체율은 평균 68%, 전남 국회의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도둑질·굶어 죽는 사람 부지기수 南, 인도적 차원에서 北 도와주길”



평양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북한 화교 이정수(가명·51)씨는 지난 23일 중국 단둥으로 나왔다. 그는 지난 1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소식이 알려지자 시장이 폐쇄되면서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고, 평양에 있던 외지인들을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하면서 북한 사회가 큰 혼란을 겪었다고 증언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지난 29일 오후 중국 군함이 중국 라오닝성 단둥의 중조우의교를 지나고 있다. 김정일 사망 이후 거의 단절됐던 북중 교역은 지난 27일부터 서서히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그는 중국으로 나올 수 있어도 북한 거주를 고집하고 있다. 북한 화교 출신은 중국에서 전대를 받고 있는데다 딱히 중국에 나와도 할 일이 없어서다. 통일에 대한 실낱같은 기대도 이러한 결정의 배경이 됐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재개발이 한창인데 아파트를 짓는데 3년간 1층이 올라갈 뿐이에요. 살아 생전 통일이 안 될 것 같지만, 통일만이 ‘소망’입니다. 저뿐 아니라 상당수 북한 주민들도 적어도 통일만 되면 중국보다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여깁니다.”

역시 단둥에서 만난 허동주(가명·55)씨는 이씨와는 달리 지난 1997년 중국 국적을 취득한 북한 화교다. 북한 평안북도 통천군에 살았던 허씨는 지난 29일에도 휴대전화로 통천군 보위부 직원과 통화할 정도로 ‘딴’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 휴대전화를 사서 전화요금을 대주면 가능합니다. 40년을 북한에서 살았는데 지금까지 북한이 어려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못

먹어서 도둑질하고 굶어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당 간부나 군인들은 거짓말하고 주민들 등이나 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이 ‘같은 민족인 북한을 인도적 차원에서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한국에서 쌀이 지원됐을 때 북한 주민들의 사정이 좀 더 나았기 때문이다.

중국 단둥에 거주하던 탈북자들은 지난 19일 김정일 사망 소식이 전해진 뒤 중국 공안들의 단속이 심해지자 단둥 주변 농촌지역으로 숨어들었다. 압록강을 건넌 탈북자들은 동북 3성인 라오닝성, 헤

이룡성, 지린성 등에 있다가 종교단체나 시민단체 등을 통해 ‘선’을 찾은 뒤 베트남 국경까지 기차로 이동했다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루트를 이용하고 있다.

중국 단둥에 있는 북한 화교, 한국 업체, 조선족 등은 김정일의 3대 세습체제가 안착하지 못할 경우 탈북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일각에서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북한 주민의 삶을 북한 당국이 계속 외면하기도 힘들어 ‘개혁·개방’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여야 일제히 지역구로... 총선 전쟁 돌입

### 18대 국회 사실상 종료

18대 국회 가 사실상 종료되면서 4월 총선을 향한 ‘선거 전쟁’이 본격 시작됐다.

12월 임시국회가 오는 15일까지 계속되지만 여야는 새해 예산안 처리를 끝으로 기능이 극히 제한적인데다 2월 임시국회 역시 4월 총선 정국에 묻혀 제대로 운영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4월 총선 결과가 연말 대선 판도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혁명적 수준의 물갈이에 나설 수밖에 없어 현역 국회의원들이 갖는 위기감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이를 반영하듯,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고강도 쇄신 소용돌이 속에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현역의원의 교체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인 50%에 육박하거나 웃돌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전국적으로 정치 신인들의 도전이 북

물을 이루고 있어 여야의 공천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초선 국회의원들은 물론 중진들도 지역구로 내려가 조직 점검에 나서는 등 ‘표 발 다지기’에 돌입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좌불안석이다. 각종 매체의 여론조사 결과, 지역민의 물갈이 요구가 절반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번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등과의 야권연대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이어서 전반적인 공천 구도 역시 유동적인 상황이다.

시민사회노동 세력과의 통합이 이뤄지면서 당내 역학구도가 유동적인데다 확실한 공천 물이 정해지지 않은 점도 현역 국회의원들을 노심초사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구정을 앞두고 민심 다지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빛日만평

- 김중두



모든게 國民興望대로..

## 광주보건대학교



# 2012학년도 광주보건대학교 신입생모집

- 정시 1 차 2011. 12. 26(월) ~ 2012. 1. 10(화)
- 정시 2 차 2012. 1. 20(금) ~ 2. 2(목)
- 정시 3 차 2012. 2. 14(화) ~ 2. 22(수)
- 입학상담 (062)958-7511~4

- 2년제 식품영양과 / 사회복지과 / 피부미용과 / 병원전산관리과
- 3년제 임상병리과 / 치위생과 / 물리치료과 / 방사선과 / 치기공과 / 환경광학과 / 응급구조과 / 보건행정과 / 유아교육과
- 4년제 간호학과

사무엘생활관(기숙사) 2인 1실(600Bed)

